

Fred Putnam 박사, 시편, 강의 1

© 2024 프레드 퍼트넘(Fred Putna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안녕하세요, 저희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프레드 퍼트넘입니다. 저는 이 시편 강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20년 넘게 히브리어와 구약을 가르쳐 왔으며 이 두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글썄, 그것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마도 그리스도보다 약 250년 전에 번역된 70인역의 헬라어 제목에서 유래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찬양을 뜻하는 테힐림(Tehillim)이라는 또 다른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일종의 작은 하프의 음악에 맞춰 부르는 시를 뜻하는 시편이나 시편은 그리스인들이 해석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랍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타이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 약 150편의 시가 씌어졌으며, 그것은 다양한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 150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견해로는 시편 9편과 10편, 또는 42편과 43편과 같은 시들이 실제로 서로 속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편의 시입니다. 그것들은 별개의 시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틴 불가타(Latin Vulgate)나 그리스어 칠십인역(Septuagint)과 같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시편을 다르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석을 볼 때나 웹 서핑을 할 때 누군가가 별게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백과사전을 읽고 있다면 시편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개신교 성경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보고 있는 구절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출처와 그들이 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의하십시오.

참고 문헌의 또 다른 측면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제목이 이제는 일부 번역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나 응답에 대한 찬양과 같은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판에서 다윗의 시편이나 고라 자손의 시편 또는 이와 유사한 시편의 제목은 실제로 1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 번호는 영어 번호 매기기와 일치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석이나 다른 참고 자료를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영어 구절인지 히브리어 구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있듯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자, 이 시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우리가 시편을 찬송가나 기도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150개 중 90개 정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머지 60개는 주님에 대한 기도이지만 실제로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때로는 처음 10구절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고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께서서 우리 손으로 한 일이나 그와 유사한 일을 확증해 주실 것이라는 약 5~6개의 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약 60%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묵상, 묵상, 권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께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세 가지 일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29편과 같이 경배와 찬미의 시편이 있습니다. . 찬양의 시편입니다.

또는 시편 93편, 96편, 98편이 있는데, 실제로 세상에 대한 기쁨의 기초가 되는 편입니다. 또는 당신이 백분의 일에 교회에서 불렀을 수도 있는 시편 100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주님께 노래합니다. 아마도 시편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종의 슬픈 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기자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원수나 질병 또는 다른 종류의 문제로부터 그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점에서 슬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편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왜 환난 때에 몸을 숨기십니까? 악인은 교만하고 악인은 고난당하는 자를 쫓아다닌다.

그들이 그들의 음모에 휩싸이게 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가 곤경에 처하였사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묻고, 주고, 보통 주님과 약간 논쟁을 벌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를 도와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약속한 서약을 이행하고 당신의 선하심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편의 3분의 1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시편 중 약 50편에서 55편의 시가 이 슬프거나 기도하는 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꽤 큰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단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친숙한 시편인 시편 1편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과 악인의 관계와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탐구하기 위해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가 꽤 많아요. 시편 2편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혹은 시편 119편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시편 12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성적이거나 명상적이거나 교육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우리 문화에서는 장 구분, 즉 시편 자체를 독립적인 단위로 보는 것이 꽤 유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시편들의 제목을 보면, 존재하는 시편의 유형을 보면 시편이 실제로 다음과 같이 구상되었음을 보여주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책이고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서 엮어서 '좋아, 이걸 보관해서 우리 시편으로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150편의 시가 아닙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시편은 다섯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 1~41편, 시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번역본은 시편 43편 이전에 2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얼마나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시대 이전, 심지어 그리스도 시대 이전에 랍비들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오래된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살펴보면 그 구분 자체가 무작정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1편 중 제1권에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중 38편이 다윗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로 돌아가서 그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번역판에서 다윗의 시편, 고라 자손의 시편, 에이탄이나 솔로몬이나 다른 사람의 시편, 또는 모세의 기도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원래 ts 엘리엇이 황무지를 썼다고 말할 수 있는 의미에서 쓴 의미로 생각되었는지, 아니면 데이비드 스타일을 의미하는지, 데이비드에게 헌정했는지, 데이비드가 의뢰했거나 승인한 것인지는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거나 그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용된 전치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치사이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어 사전에서 to라는 단어를 찾아볼 기회가 있는 것처럼, 특히 Oxford English

Dictionary와 같은 곳에서 그 단어를 찾는다면, 항목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to라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많은 것. 이제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하고, 언어를 말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번역되는 전치사인 the of는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 to 또는 for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전치사로 또는 for로 번역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다윗을 위한 시편, 다윗을 위한 시편,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든 그리고 전통, 오래된 전통에 비추어 이 전치사가 실제로 저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편 제목을 보고 그 책이 실제로 어떻게 배열되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일부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의 통일 시대에 나온 것이고, 일부는 수백 년 후 포로 생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저자가 편곡한 것이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정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매우 강력한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20절 끝부분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다 얻은 줄로 생각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는 시편 전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축적되는 과정이 아마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사해 두루마리도 시편의 사본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부 사본에는 시편이 같은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편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어떤 구절이 어떤 시편인지 식별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 순서가 때로는 동일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시편의 앞부분에 있는 사본, 즉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 특히 처음 두 권의 책일수록 배열이 더 일관됩니다. 시편 후반부에서 보면 그 배열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시편의 두루마리인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전체 두루마리를 찾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어느 곳에서든 찬송가를 집어 들고 아, 이것들은 모두 20세기 기독교 찬송가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일 것이라는 찬송가 책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누군가가 그것을 겪고,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넣을지, 어떻게 배열할지 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해 동굴에서 나온 두루마리가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불분명합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는 학자들의 방식 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두루마리의 기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우리가 시편의 이 다섯 권의 책을 볼 때, 우리는 처음 72편의 시편 중에서 55편이 다윗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하여, 다윗에게에 대하여, 다윗에게에 대하여, 또는 무엇이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두 권인 시편 73편부터 106편까지는 다윗이 쓴 시가 세 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107-150편에는 시편 108편부터 110편까지 세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끝 부분에는 역시 다윗의 시로 기록된 137-145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에는 두 개의 작은 다윗 시편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배정된 시편 73편 중 55편인 다윗 시편은 처음 두 권에 들어 있는데, 이 두 권을 보면 알 수 있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문구로 끝나기 때문에, 시편 72편 끝부분에서는 그것이 그 자체로 모음집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들은 나중에 수집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2권과 3권을 살펴보고 시편 43편과 89편 사이에 그 중 13편은 우리가 교회 역대에서 읽은 합창단 지도자 중 한 명인 고라 자손이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작은 모음집이고, 모두 연속해서 나오거나 중간에 방해하는 시편이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편 그룹이 있고 모두 시작됩니다.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앞서서 이 제목 때문에 이 시편들이 서로 속한다고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3권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큰 덩어리는 아삽의 시편인 아삽이 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세 번째 책에서는 고라와 아삽의 아들들이 시편 17편 중 15편을 썼습니다.

David는 단 한 권만 썼지만 처음 두 권의 책 대부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첫 번째 책에 익명의 시편이 세 편만 있다는 점에서 시편의 형태가 저자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그런 제목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아라고 불립니다. 거기에는 시편 1편, 시편 2편, 시편 33편이 있습니다. 제2권에는 고아 시편이 네 편 있습니다.

3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4권과 5권에는 42편의 고아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4권에서는 14권이고, 5권에서는 28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있는 시편이 처음에 있고 저자가 없는 시편이 끝으로 갈수록 더 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배열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우리가 행복한 시편이나 슬픈 시편, 기도와 찬양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처음 세 권의 시편에서 대부분의 시편이 그 중 50개가 넘는 것이 청원 기도입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저를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시편 29편과 같이 단지 소수, 약 20편 정도만이 행복하거나 찬양의 시편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권의 책에서 우리는 시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권이 행복한 시편임을 발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편, 혹은 확신과 숭배의 시편. 그리고 그중 약 15편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는 기도로 구성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인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구원, 승리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절망에서 확신으로, 기도에서 찬양으로의 동일한 움직임이 기도인 거의 모든 시편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경건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시편 기자는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끝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할지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갓으시고 사람들을 내 밑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시편의 끝 부분에서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심지어 나중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개들과 나를 위협하는 황소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발견되는 이러한 절망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그를 위해 행하셨거나 행하실 일, 행하고 있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들과 시편 전체에서 매우 명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다지 촘촘하게 조직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조직된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결론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해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시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기능했습니까? 당신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도서라고 불리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찬송가, 성전의 찬송가, 성막이나 성전의 기도서 등으로 불리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것은 그냥 제쳐두고, 그 단어는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명사와 동사는 노래와 노래로 번역되지만, 그것이 노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모차르트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레고리오 성가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정말로 중동에 가서 그들이 부주키와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음악 스타일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마도 우리가 2,500년에서 3,000년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공연이 어떤 소리를 냈을지 정말 모릅니다.

악기, 심벌즈, 다양한 종류의 나팔과 나팔, 금속과 동물의 뿔, 그리고 어떤 종류의 현악기, 그리고 아마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몇 가지 징후를 생각할 때, 적어도 시편 제목 중 일부는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옥타브인데, 일종의 조화로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그 노래들이 어땠을지 정말 모릅니다. 때때로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속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면, 어쩌면 성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노래하는 것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데려와 바칠 때, 그녀는 일어나서 사무엘상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는 사무엘하 6장에 묘사된 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뛰며 춤추고 있고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놀고 춤을 추고 있다면 아마도 어떤 종류의 노래가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다윗 이후 500년이 지난 느헤미야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격차가 크죠.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을 봉헌할 때 두 명의 합창단이 일어나 성벽 주위를 돌며 다윗의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악기가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단지 데이비드가 디자인한 악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이 답을 아는 것이 좋을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일부 시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은 사무엘하 6장 19절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9절은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장막에 두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끝나는데, 그는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자신을 놀렸던 미칼과 사건을 겪게 되고 더 이상 그녀에게 남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 역대상 16장에서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 저자보다 예배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명의 합창단과 합창단 지휘자, 악기 연주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누가 무엇을 연주했는지 그리고 장, 장, 장에 걸쳐 실제로 이름 목록과 합창단에 누가 있었고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인지. 그런데 그 중간, 16장 8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부르라고 한 노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날에 다윗이 먼저 아삽과 그 형제에게 명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36절까지 이어지는 시를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리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친숙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5절이 시편 105편의 처음 15절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둘은 동일합니다.

그러다가 23절에 이르면 시편 105편이 멈출 때 실제로 그는 시편 105편의 끝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춥니다. 앞으로 몇 구절 더 남았습니다. 그는 23절부터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전반까지 인용합니다.

이번에도 그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는 방금 멈췄습니다. 나는 그가 왜 거기서 멈추는지 모르지만, 그는 단지 그 정도까지 간다.

그리고 34절 아래에는 34절이 시편 106편의 첫 절입니다. 그리고 35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06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연대기 작가의 방식대로,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밖으로.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든 것을 노래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처음과 마지막 절만 불렀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소 흥미롭지만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36절은 시편 72, 18편과 같습니다.

따라서 역대기에 단일 시로 제시된 것은 실제로는 시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조각들로 구성된 파스티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시편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지시한 대로 부른 것입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예루살렘 천막에서 예배할 때 레위 사람 합창단의 두 대두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시편에 나오는 시 외에도 많은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관해 예언한 내용이나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바다를 건너고 난 후의 바다의 노래를 발견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브올의 아들 발람의 예언을 담은 네 개의 시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과 33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합하여 성경의 대략 3분의 1은 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의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그것들이 포함된 이야기와 관련하여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시편에서 따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모세의 노래인 신명기 32장과 33장은 시편에서 발췌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그 경우를 위해 쓰여졌거나 그 경우를 위해 작곡되어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연구와 주석에서 이 시편이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이런 종류의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읽는 것이 매우 일반적일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확실히 이 시편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96편, 106편, 아마도 72편은 축하 찬송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참회하는 시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중 일곱 편이 있는데,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이 참회하는 시편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것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랍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것이 왜 참회 시편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은, 32편과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의 시편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매우 친숙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룹으로 생각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가 처음으로 쓰여졌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참회 시편을 쓰겠다고 말하거나 시편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주제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주제가 계속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네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순례 시편이라고 부르거나 제목에 번역된 내용은 대개 동양의 노래입니다. 글썄, 까다로운 부분은 동의로 번역된 단어가 다이얼 단계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글썄, 태양이 아니라 태양 단계는 태양이 하늘에 떠오를 때 그림자가 단계적으로 바뀌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려보내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정말로 이 일을 할 것이라는 어떤 신호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태양이 여섯 단계 뒤로 물러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글썄요, 그것이 바로 그가 그런 다이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늘로 되돌아가면서 그림자가 다이얼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실제로는 읽거나, 읽거나, 노래하거나, 하루 중 다양한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5개가 있고 다이얼에는 1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로 올라가기 위해 첫 번째 계단에 오를 때 한 곡을 불렀고, 다음 계단에서는 다음 곡을, 세 번째 계단에서는 122번을 불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아, 이것이 이것이 사용된 방식이고 갑자기 그것이 우리의 이해가 됩니다. 아, 그것이 바로 그것이 사용된 방식이고 우리는 그것이 그것이 해석되는 방식이라고 가정하고 간단히 계속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이에 대한 증거도 다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진술을 읽을 때 시편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꽤 큰 소금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시편의 본문을 연구한 다음 역사서까지 연구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에 대한 증거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간략한 소개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시편이 분명히 정리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저자의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일부 시편은 제목별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분류된 시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첫 부분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는 84편부터 150편까지 야훼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에서 야훼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부터 83편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주님(Lord) 또는 야훼(Yahweh)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영어 성경에서 모두 소문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대문자 L과 작은 소문자 ord가 있는 Lord가 아니라 L과 작은 대문자 ORD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이름인 Yahweh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야훼 섹션과 엘로힘 섹션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준 단어이고 또 다른 야훼 섹션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시편 104편에서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104편, 105편, 106편 세 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111편부터 117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히 누군가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을 함께 묶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다시 끝났다는 말씀도 누군가가 이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현대적인 비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날 시인이나 에세이나 단편 소설을 쓰는 작가가 시집이나 단편 소설 등을 출판하기로 결정하면 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대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논문을 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발전 과정과 시인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인이 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별로 그룹화되나요? 첫 번째 단어를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그룹화되니까? 시인이 그 시를 쓴 날의 느낌을 기준으로 그룹화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150개를 모두 가지고 계단 꼭대기로 가서 아래로 던지고 착지하는 곳에 책을 놓을 건가요?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정리하는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했듯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이 시점에서 이 시의 실제 위치 뒤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따르고 이것보다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따르고 다음 것보다 앞에 옵니다. 그리고 책 전체에 균일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시편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AE Houseman이나 Robert Frost의 모음집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 앞뒤에 Frost가 선택한 시를 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분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시편을 150개의 개별 시로 읽는 데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원하거나 필요하거나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읽은 다음 책을 덮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특정 시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앞에 오는 시편을 읽고 그 뒤에 오는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의 3000년 전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시편 3편이 시편 4편 앞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시편 5편보다 먼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편 5편이 다음에 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나는 거기에 시편 6편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옆에 시편 5편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때로는 왜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야훼를 왕으로 언급하는 모든 시편, 즉 대부분의 시편은 시편 91편과 100편 사이에 나옵니다. 시편 29편은 이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예외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시편의 작은 그룹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제이고 우리는 이것을 주제별로 그룹화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히브리어로 한다면 더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단어와 구조, 그리고 사물로 주제별로 매우 촘촘하게 얽혀 있는 약 12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정리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고, 이는 우리가 그것을 읽는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도록 엮거나 모아 놓은 것들로 보기보다는, 책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책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그 전후의 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때로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또 다른 질문은 시편의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기도와 청원의 시편이고 도움을 구하는 시편과 찬양과 감사의 시편에 이르기까지 제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이 어떻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모양으로? 그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청원의 시편 중 하나입니까? 찬양의 시편 중 하나입니까? 수많은 찬양의 시편 가운데서 간구의 시편인가? 왜 그걸 거기에 두었을까? 왜 그들은 거기에 시 한 편만 넣어서 한 종류의 시편을 중단시키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생각하게 만들고, 고려하고 숙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째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는 빨리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림과 아이디어로 얽히고, 현실의 일부 측면을 보는 다른 방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시의 실제 명제 내용, 즉 예를 들어 주님은 왕이시다는 진술은 실제로 요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탐구하는지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왕이시라고 생각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묵상하는 성경적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 자체는 우리에게 단지 신학적 내용이나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틀 잡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는 로마서 12장에서 세상이 우리를 그 틀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 즉 주님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을 책으로 읽을 때 사물의 형태, 예를 들어 우주, 사물의 형태가 궁극적으로 구원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본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천 년 전에 신자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개입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과 그분의 왕국의 사역과 교회 건축에 단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시편의 형태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한 가지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한 시의 종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 기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시, 묵상, 반성, 찬양을 부르는 시 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합니다.

시 자체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주로 그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대화 상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비추어 우리의 상황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찬양, 예배, 복종, 숭배를 요구함으로써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께 응답하도록 요청하거나, 현실의 작은 측면(예: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시편 19편은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창조된 모든 것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자체는 그 자체를 넘어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통에 대한 묵상입니다.

창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우주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기본 개념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의사소통을 하시고, 죄송하지만 그 단어를 가지고 놀으셨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시편 19편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책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된 책,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시적으로 쓰신 책으로 읽습니다.